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대한 연구

Present and Future the Amounts of Leisure Time and Leisure Activities of Homemakers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연구원 : 민 경 애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Researcher: Kyung Ae, Min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교수 : 윤 복 자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ossor: Bok Cha, Yoon (Lee)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V.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논의 | |

= 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leisure time and leisure activities of homemakers and to predict future leisure time and future leisure time orientation. Present leisure time and future leisure time orientation were studied in relation to sociodemographic and physical environmental variables, time use variables and attitude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were the average daily housework time of homemakers was 6.5 hours on weekends. Housework time of employed homemakers was 3.5 hours and full-time homemakers was 8.0 hours. Daily leisure time of homemakers was 4.0 hours on weekdays and 4.8 hours on weekends.

Most homemakers leisure activities on weekdays and weekends were reading, watching TV or listening to the radio and resting. In the future, they want to go hiking, hunting, traveling or fishing, attending concerts, drama or movies and playing sports games.

The homemakers who felt their amount of present leisure time was sufficient were 35.4% and insufficient were 37.9%. Regarding the present leisure activit-

ies, 43.1% of homemakers expressed dissatisfaction, though 21.9% of them satisfied.

Factors affecting the homemakers weekday leisure time were homemakers' occupation, family type, type of heating for house and cooking, weekday and weekend housework time of homemakers. Weekend leisure time interacted with family life cycle, number of children, income, education and occupation of homemakers, size of house, type of heating for house and cooking, weekday housework time of homemakers, housework time of employed housekeeper, husbands' weekend housework time, weekday leisure time of homemakers.

서 론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은 그 후 우리사회의 여러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의 직업진출 및 핵가족화와 가정기기 및 시설설비의 현대화를 비롯한 가정내 여건의 변화는 주부의 인생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인간발달의 광범위한 측면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정학적 측면에서 깊은 관심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와 개인주의의 발전에 따라 가사일보다는 여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박재형, 1983), 주부와 가족구성원은 그들의 시간사용을 고려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지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의 실태와 그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간관리와 앞으로의 여가활동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가사작업시간과 여가시간을 조사한다.

둘째, 현재 주부의 여가활동 실태와 그 지향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주부의 여가에 대한 반응 및 태도를 밝힌다.

넷째,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시간의 증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종속변인인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시간의 증가의도, 그리고 독립변인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 가정의 총수입, 주부의 교육정도, 주부의 직업)과 물리적 환경변인(주택유형, 주택의 크기, 주요난방방식*, 취사연료의 종류), 시간사용변인(주부의 가사작업시간, 가사작업의 조력시간) 및 태도변인(여가시간의 충분도, 여가활동의 만족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부의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물리적 환경변인에 따라 주부의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시간사용변인과 주부의 여가시간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물리적 환경변인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태도변인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7) 주부의 현재 여가시간과 여가시간의 증가의도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방식의 종류

연구 방법

결과 및 논의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이며,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시간사용 및 여가활동등에 관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일치도 검증과 내용타당성 검증을 한 뒤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1984년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가정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군집표집방법으로 추출된 서울시 주부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56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401부를 통계처리하였다.

3) 자료처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 SAS Package 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χ^2 -test,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2 , c^2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

(1) 시간사용 실태와 여가시간의 증가 의도

1. 가사작업시간

조사대상 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작업 시간은 표1과 같이 취업주부인 경우 3.5시간, 비취업주부인 경우 8.0시간이었으며, 가정부의 유무에 따라 가정부가 있는 경우 평일 2.8시간, 휴일 2.6시간, 가정부가 없는 경우 평일 7.3시간, 휴일 6.8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부의 가사작업시간은 평일 6.5시간, 휴일 6.3시간으로 나타났다.

2. 여가시간

조사대상 주부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표 2와 같이 평일 4.0시간, 휴일 4.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병희*(1977)의 조사결과 3.7시간보다 전체적으로 0.7시간이 많았다. 이것은 8년간의 조사시기의 차이에 기인되며 여가시간이 그동안 증가되어 왔다고 해석된다.

(2) 여가활동의 실태와 그 지향

1. 여가활동의 실태

평일과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앞으로 하고

표 1. 주부의 가사작업시간에 대한 비교

(단위: 시간)

강신주 등 (1968)	윤복자(1975)				장명욱 (1976)	이영심(1976)		안병희(1977)		임정빈(1981)	
	비취업		취업			가사노동	영농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8.5	8.4	7.4	6.9	9.4	7.6	7.6	5.1	10.0	9.7	11.8	13.4
서울대신문연구소(1983)						본조사(1984)					
1983			1981			취업	비취업	가정부유		가정부무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6.6	6.1	5.5	6.8	6.5	5.7	3.5	8.0	2.8	2.6	7.3	6.8

* 안병희,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제 16권, 1977.

임정빈, "도시 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 1981에서 재인용.

표 2. 주부의 여가시간에 대한 비교

(단위 : 시간)

강신주 외 (1968)		안영희 (1977)		임정빈(1981)		서울대 신문연구소(1983)		임명자 외(1983)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농 번 기	농 한 기
6.6		3.6		4.1	5.3	1.1	1.3	1.4	6.7

본 조 사		Matsushima 외(1982)		Nickols 외 (1983)		Itoh (1983)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주 부	남 편	취 업		비 취 업	
						평 일	휴 일	평 일	휴 일
4.0	4.8	7.0	6.7	3.7	4.3	2.2	5.4	4.8	5.4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분포는 그림 1 과 같다. 평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주간지나 신문·잡지를 가볍게 읽는 것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휴일에는 TV·라디오 시청이 12.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임정빈(1981)의 조사결과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1983)의 조사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하고 싶다는 여가 활동은 여행·등산·사냥·낚시가 14.1%로 가장 많았고, 정원 손질, 화초 재배, 극장·연극·음악회 참석, 스포츠 활동, 세미나·강연회 참석의 순이었다. 그러므로 여건만 허락된다면 Jensen (1977)*의 여가시간 사용의 차원에 대한 분류에서와 같이 단순한 오락이나 유희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나 창조적인 몰두에 관계되는 여가 유형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봉사과 같은 높은 차원까지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여가시간에 대한 반응 및 태도

현재 갖고 있는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의 1/3 이상이 충분하다고 한 반면, 현재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43.1%가 불만족한 것으로 보아 여가의 양 보다는 그 질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가 시간을 늘리겠는지의 여부에 대해 34.2%가 늘리며, 32.2%가 안늘리겠다고 하였다.

2) 가설검증의 결과 및 논의

(1) 주부의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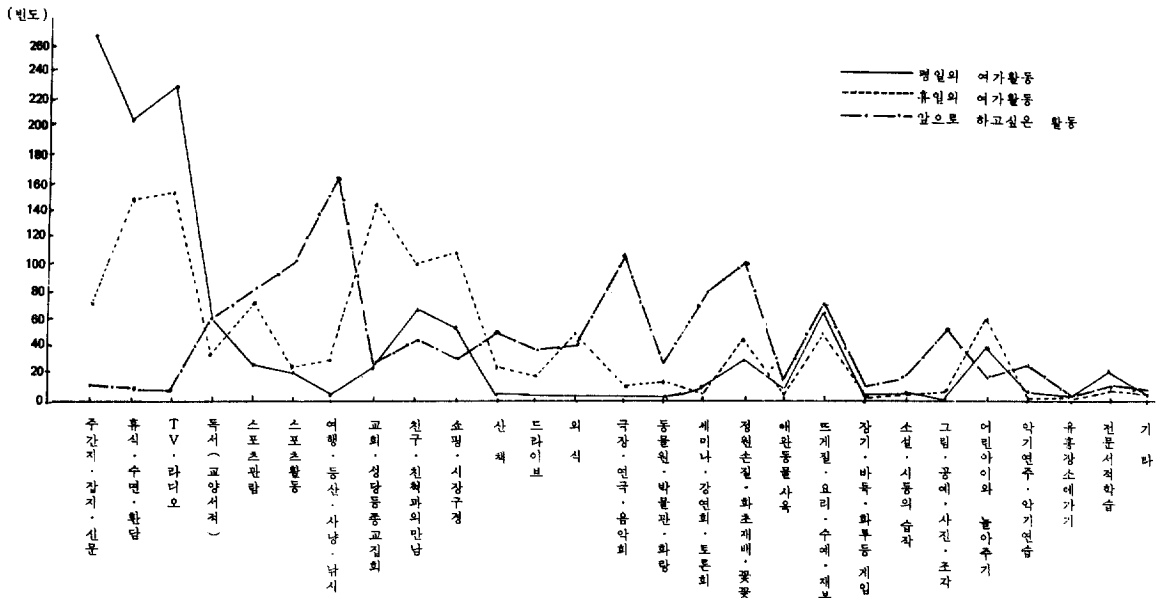
< 가설 1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부의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F-test 한 결과 평일 주부의 여가시간은 주부의 직업과 가족형태에 따라 각각 .001수준과 .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한 결과 직업을 가진 집단이 가지지 않은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적으며, 핵가족과 확대가족 두 집단간의 여가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주부의 여가시간은 가정생활주기와 주부의 직업에 따라 .001수준에서, 주부의 교육정도와 총수입에 따라 .01수준에서, 자녀수에 따라 .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Multiple Range

* Jensen 은 여가시간 사용의 차원을 다음 6 가지로 분류하였다.

4. 다른 사람에게 봉사
3. 창조적인 몰두
2. 적극적인 참여
1. 다른 사람의 활동에 정서적 참여
0. 오락, 유희
- 0 이하. 개인, 사회에 해를 입히는 활동



* <그림 1> 해석상의 유의점
 앞으로 하고싶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난 그림중에서 신문, 잡지 읽거나 수면·휴식, TV, 라디오 시청 등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여 반드시 이런 활동을 하지않고 등산, 사냥이나 스포츠활동 등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것은 하되, 그 이외에 빈도가 높게 나타난 활동만을 지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주부의 여가활동 실태조사 분포.

test 결과 가정형성기와 축소기에 비해 확대기 집단이 여가시간이 더 적으며, 고급관리직·자유전문직 집단이 가장 여가시간이 많고, 소매상·판매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총수입 90만원이상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간에 수입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다고 나타났다. <가설 1>의 결과 평일과 휴일 주부의 여가시간과 주부의 직업은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물리적 환경변인에 따라 주부의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F-test 한 결과 평일 주부의 여가시간은 취사연료의 종류에 따라 .001수준에서, 난방방식에 따라 .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결과 취사연료로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집단이 연탄사용집단보다, 중앙난방집단이 연탄아궁이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난방방식이나 취사연료의 종류에 따라 생활수준이 달라지며, 연탄아궁이나 취사연료로서의 연탄은 주부의 가사작업 시간을

증가시키므로 그만큼 여가시간은 적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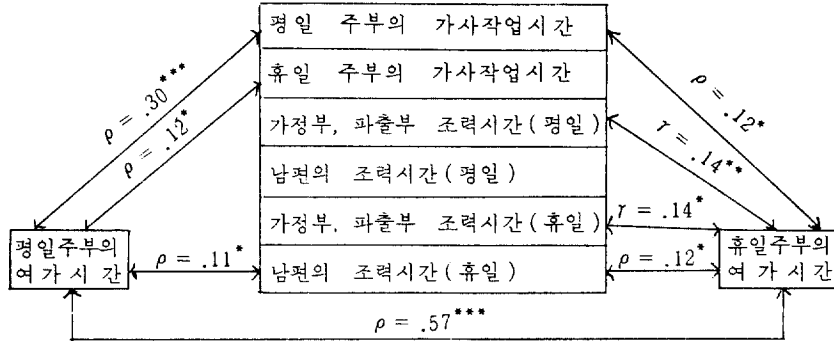
휴일 주부의 여가시간은 취사연료의 종류에 따라 .001수준에서, 주택의 크기와 주요난방방식에 따라 .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결과 주택의 크기 50평이상인 집단이 가장 많고, 20~30평 집단이 가장 적었다.

η^2 결과 취사연료의 종류, 주택의 크기, 난방방식을 앞으로써 휴일 주부의 여가시간을 각각 4%씩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넓은 주택에 사는 주부일수록 관리에 드는 시간이 많고 여가시간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여가시간이 많은 것은 물리적 환경특성보다도 그 안에 사는 거주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더 크게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3> 시간사용 변인과 주부의 여가시간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그림 2와 같이 평일 주부의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주부의 가사작업시간, 휴일 남편의 가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측정도구의 특성에 의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과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 ρ 를 같이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둘중에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도식에 표현하였다.

그림 2. 시간사용 변인과 주부의 여가시간 상관관계 검증 결과 도식※

사작업 조력시간, 휴일 주부의 여가시간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휴일 주부의 여가시간 평일 주부의 가사작업시간, 평일과 휴일 가정부의 조력시간, 주부의 여가시간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관계가 지극히 미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 가설 4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χ^2 -test 한 결과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는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 주부의 직업에 따라 각각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수입과 주부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변인간의 상관정도인 c^2 의 값으로 보아 그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집단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기대빈도를 구하여 관찰빈도와 비교해 본 결과, 확대초기와 축소기의 집단, 자녀수가 1명이하와 5명이상인 집단, 확대가족, 고급관리직 및 자유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을 가진 주부가 여가시간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핵가족 집단은 그런대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반해 확대가족 집단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반응으로 해석되며, 직업을 가진 집단은 현재의 부족한 여가에 비해 앞으로 여가시간을 더

갖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가설 5 > 물리적 환경변인에 따라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χ^2 -test 한 결과 물리적 환경변인에 따라 전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 가설 2 >와 같이 주택유형을 제외한 3개의 물리적 환경변인이 주부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긴 했으나, 앞으로의 증가의도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가설 6 > 태도 변인에 따라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는 현재 여가시간의 충분도와 여가활동 만족도에 따라 각각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빈도와 관찰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 여가활동에 불만족할수록, 여가시간이 부족할수록, 앞으로 여가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주부가 많았다. 이 결과에서 여가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주부는 앞으로 여가시간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다고 해석된다.

< 가설 7 > 주부의 현재 여가시간과 미래 여가시간 증가의도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χ^2 -test 한 결과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는 평일과 휴일 주부의 여가시간 및 남편과 공

유하는 여가시간에 따라 전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7>은 부정되었다. 위의 가설 6, 7의 결과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는 현재 여가시간의 양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고, 여가시간 및 활동에 대한 충분도와 만족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여가시간의 양적인 면보다도 질적인 측면과 더 연관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노동·휴식·여가로 이루어지는 생활시간중 여가가 가정내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여가시간을 통해서 가정의 결속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이 개인중심으로 되어가면서 대화의 단절로 인한 세대간의 마찰, 가정내의 불화와 나아가 청소년문제, 노인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가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것인가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민 전체의 질적인 생활과 건전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부의 여가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직업이었으며, 가사일을 가족들이 전담하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거주자의 특성에 의한 영향에 크게 좌우하므로 물리적 환경변인 자체는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평일에 가사작업을 많이 할수록 평일 여가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관리의 능력에 따라 여가시간에 대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여가시간 증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현재의 여가시간 충분도와 여가활동 만족도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가족형태, 주부의 직업이었다.

미래의 여가활동 유형의 지향으로 나타난 것은 등산·사냥·낚시·여행, 극장·연극·음악회, 스포츠활동, 세미나 강연회 참석 등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도로망의 확장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의 확대, 문화시설 및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 및 그 지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앞으로 주부의 시간사용에 대한 지침

과 여가시설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주부의 계획적인 시간관리와 질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시간배분과 효율적인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와 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수준의 향상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강신주 : 생활시간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제 6권, 1968.
- 2) 박재형 : 노인 여가의 구조적 특징과 그 유형,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서울, 1983.
- 3) 서울대신문연구소 : 한국인의 생활시간 조사, 한국일보, 1983. 12. 6.
- 4)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 서울 시민의 생활 가치 의식 여론 조사, 동아일보, 1983. 1. 1.
- 5) 윤복자 : 가사노동시간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제 13권 2호, 1975
- 6) 이영심 : 농촌주부의 시간사용과 기구 및 시설설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연세대 대학원, 1976.
- 7) 임명자의 : 농가 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생활개선자료, 제 1호, 농촌진흥청, 1982.
- 8) 임정빈 : 도시 주부의 생활 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19권 2호, 1981.
- 9) Beard, Goldsmith E. : Time use beginning families with employed wives, Ph. 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1977.
- 10) Hall, Florence T. & Marguerite P. Schroder : Time spend on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2. No. 1, Jan. 1970
- 11) Itoh, Setsu : Time-Budget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of Employed Husbands and wives, *Japanes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34, No. 7 8, 1983.
- 12) Jensen, Clayne R. : Leisure and Recreation: introduction and Overview, Lea & Febrioeer, Phil. 1977.

- 13) Matsushima, Chiyono : Time input and Household work output study in Japan—pres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May, 1981.
- 14) Matsushima, Chiyono and Yutaka Suzuki : Household Use of Time—Transitions from 1960 to

- 1980—International Research Group on Time Budgets and Social Activities, 10 th World Congress of Sociology, August 16-21, Mexico, 1982
- 15) Nickols, S. Y. & Ghany M.A. :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No. 2, Dec. 1983.
-